

## 미래의 한의학과 방제학, 어떻게 할 것인가

강순수  
감자원 한의원

### ABSTRACT

## Future of Korean Oriental Medicine(Bang-Jae) ; A personal perspective

Kang Soon Su  
Gab-Ja Oriental Clinic

There are people, however, who do not understand what science means, especially among those practicing Oriental Medicine. They associate science with machines and consider that science is something not applicable to Oriental Medicine because Medicine is for humans not for machines. Science is a system of knowledge of universal facts and laws obtained based on objectivity, which under the same conditions gives the same results no matter when, where and how it is done and no matter who does it. To achieve development of that level, knowledge and technology from all areas should be considered and, if found useful, should be accepted.

The immediate hurdle is to make Bang-Jae Science understood. So far Bang-Jae Discipline as understood by the practitioners of Oriental Medicine is nothing more than selecting prescriptions inherited from the predecessors that match given symptoms. To make Bang-Jae Discipline a science, i.e. Bang-Jae Science, we should not only study the traditional literature to gather data, experiment and verify with them one after another, make them objective and carry our scientific

- 
- 교신저자 : 강순수
  - 서울 종로구 원남동 49-18 감자원 한의원
  - Tel : 02-763-8684
  - 접수 : 2006/ 06/ 1    채택 : 2006/ 06/ 9

systemization. It takes fresh and creative trials but it will surely contribute to the future medical science.

**Key word** : Bang-Jae, future medical science.

한의학의 존재의의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한편 한의학이 과거의 유물이고 과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존재가치가 없어진다는 생각도 성급한 결론이다. 한의학의 미래의 연구방향에 관한 한 중국도, 일본도 다 같이 방향 설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학자들 간의 토론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중국에서는 “전통의학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자들은 전통의학 속에는 精華와 찌꺼기(우수한 면과 미신적인 면)가 있으며 전통의학이 발전하려면 미신적인 면(찌꺼기)을 탈피해야 한다는 진보적 주장을 하는 쪽과 유구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진리를 경솔하게 타파하면 전통의학의 진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보수적인 신중론을 주장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본은 묵묵히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과 전통적 이론을 고수해야 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한의학의 장점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서양의학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소견대로 실천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동양삼국 어느 나라도 일치된 미래의 방향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설정의 어려움을 겪는 근원적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의학이 현재까지도 임상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현대의학에서 미해결된 질병들에 약효가 있다는 사실이 일반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끄는 이유이고 그러면서도 진단과 치료에 객관성이 희박하여 의사 자신도 처방에 대한 예후가 애

매한 시술을 하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임상적 가치나 현대의학에서 미해결의 질병에도 약효를 나타내는 장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한의학 진단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陰陽辨證에 의한 變症論治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물을 그대로 치료약으로 쓰며 약재들을 교묘히 배합하는 수천년의 누적된 경험적 처방에 있는 것인가, 또 鍼과 灸의 생체의 자극치료가 유리하기 때문인가?

이러한 의문들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보면 정화와 찌꺼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정화만 추릴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빠른 발전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 한의학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1. 인간을 해부, 분석하지 않고 통일된 한 유기체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生氣論)
2. 주관적 증상을 중시하고 증후군을 계통적으로 해석, 판단하는 것(辨證論治)
3. 鍼, 灸, 또 按摩의 자극을 통하여 생체 기능을 향진 또는 억제하여 치료효과를 도출하는 것(鍼, 灸, 按摩)
4. 자연물을 분석하지 않은 채 그 개성을 파악하여 약으로 사용하며, 그 위에 두가지 이상의 약물을 교묘히 배합하여 인체에 대한 유해작용을 극소화 할 뿐 아니라 치료효과를 상승시키는 것(방제학)
5. 병의 외적 요인을 처리하기보다는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키는 것(보사법)

한의학의 결점은

1. 인체기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知見이 없다는 것(생리학, 병리학, 해부학 등)
2. 병의 원인에 대한구체적인 기전인식이 없으므로 공중보건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미생물학, 예방의학)
3. 대증치료에 유리한 면이 있으나 원인치료에 약하다는 것(항생제, 외과술)
4. 인체유해작용 또는 부작용이 적은 반면 효과가 완만한 것(생약)
5. 진단과 치료방법에 객관성이 없는 것(검사, 계측, 규명이 불가)

이상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개인의학으로서는 그 위치가 옛날과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사회와 공중의학으로서는 적지 않은 결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음양원리라는 변하지 않는 체계로 인하여 그 이상의 발전이 阻害되게 되는 것이다.

크게 보면 한의학의 특징은 자연적이고 소박한 주관에 의한 객관적 음양원리의 연역체계에 있으며 서양의학의 특징은 인공적 기술에 의하고, 객관적 실험에 의한 과학적 귀납체계에 있다.

그 성질상 한의학은 항상 불변의 체계 속에 경험에 의한 새로운 해석이 부가될 뿐이고, 서양의학은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이론이 수용됨으로서 미해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뿐 아니라 한의학의 특징까지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한의학은 소극적이고 정체되어 있는 반면, 서양의학은 적극적이며 활성적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의학의 장점과 특징을 지키기 위해 옛 이론을 답습하면서 한의학의 영역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어 존재가치가 소멸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각 방편의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로 능동적인 발전을 통하여 미래의학에 기여할 것인가...?

물론 아직 그대로 버틸 시간은 남아 있다. 제도적으로 불리하다 하더라도 개인은, 또 일반대중이 현대의학의 미해결점에서 치료 대상에 소외되어 방황할 때 옛 그대로의 치료법은 오히려 매력을 주며, 한의학에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과학화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방향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자.

1. 陰陽原理의 연역법에서 탈피해야 한다.
2. 현대의 과학지식에 의한 인체의 기전이론을 수용해야 한다.
3. 한의학의 辨證論治의 특징도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리해야 한다.
4. 약으로 사용되는 자연물의 과학적규명은 물론이요 그 배합에서 나타나는 효능도 재정리 되어야 한다.(이 곳이 바로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는 한의학의 보고이다.)
5. 鍼, 灸, 按摩의 치료체계인 경락경혈도 새로운 이론이 정립되어야 한다.